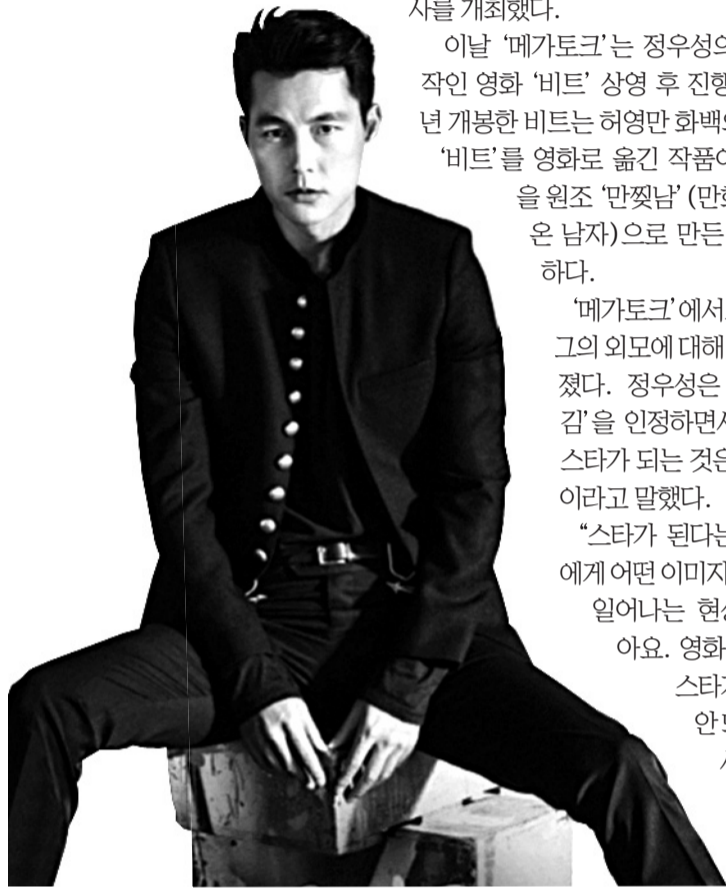


“잘생김? 인정... 잘나지는 않았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메가토크’

대표작 ‘비트’ 이후
영화 파급력 알게 돼
“소소한 일상만큼
찬란한 아름다움 없어”



“잘생겼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잘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정우성은 ‘연예인의 연예인’으로 통하는 배우다. 미남미녀가 가득한 연예계에서도 그를 만나는 순간 후광이 보였다든 목격담이 전해질 정도다.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 미남 배우로 손꼽히는 만큼 그의 인터뷰나 기자회견에서는 항상 ‘얼굴 칭찬’이 빠지지 않는다. 본인도 외모에 대한 찬사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웃음으로 넘기는 경지에 이르렀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영화제 기간 배우 정우성의 영화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하고 13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메가토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메가토크’는 정우성의 초기 대표작인 영화 ‘비트’ 상영 후 진행됐다. 1997년 개봉한 비트는 허영만 화백의 원작 만화 ‘비트’를 영화로 옮긴 작품이자, 정우성을 원조 ‘만찐남’ (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으로 만든 작품이기도 하다.

‘메가토크’에서도 어김없이 그의 외모에 대해 찬사가 이어졌다. 정우성은 선뜻 ‘잘생김’을 인정하면서도 “배우가 스타가 되는 것은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타가 된다는 것은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가 각인돼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잖아요. 영화 현장에서는 스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현장에서는 동료만 있는 거죠. 동료에게 스타 대

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비트’는 개봉 당시 스크린을 벗어나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나에겐 꿈이 없었다’나 ‘17대 1’ 같은 명대사가 탄생했고, 수많은 남학생이 왼쪽 눈을 가린 정우성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했다.

그가 혼자 오토바이에 탄 채 두 손을 모두 놓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장면은 ‘남자의 로망’으로 통하기도 했지만, 교통사고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날 메가토크에 동석한 김성수 감독은 “비트를 연출하고 딱 두 가지를 후회했다. 정우성에게 두 손 놓고 오토바이를 타게 한 것과 싸우기에 앞서 입으로 머리카락을 붙게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우성도 “비트는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느끼게 해줬다”며 “영화가 갖는 파급력을 알게 된 이후 작품 선택에도 신중하게 됐다. 비트 이후 조폭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도둑지 조폭 영화에는 출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비트’는 ‘민’이 절친 ‘태수’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혼자서 폭력조직에 쳐들어갔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정우성은 ‘민’의 죽음에 대해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간 느낌이었는데”며 “왜 민이 나약하게 죽어야 하나. 내 마음속에서는 살려야겠다. 같이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믿을 간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객석에서 ‘민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아내가 있을 거고 애도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요. 번듯한 직장에는 못 들어갔을 테니까 조그만 자영업을 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잘 타니까 택배 일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놀 얘기하지만 소소한 일상처럼 찬란한 아름다움 없는 것 같아요. 2018년의 민은 소소한 일상을 찬란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연합뉴스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특별전에 선정된 배우 정우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멤버 살해 위협”

이번이 세번째...LA 경찰국, 조사 중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이 오는 9월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할 예정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한 멤버에 대한 살해 위협에 대해 “들어다보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미 NBC 뉴스가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LA 경찰국 미디어 담당 토니 임 경관은 “우리는 그 문제를 알고 있고 들어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살해 위협을 받은 것과 관련돼 있다고만 전했다.

멤버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날 온라인에는 LA 공연을 앞둔 지인과 관련한 살해 위협 글이 올라왔고 이번이 세 번째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방탄소년단의 미국 에너지 공연을 앞두고 SNS에 지인을 위협하는 글이 올라왔고, 올해 5월에도 9월 미국 포트워스 공연을 염두에 둔 유사한 내용의 글이 등장해 소속사와 팬들을 긴장시켰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진위를 떠나 멤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과거에도 철저한 대비를 했고 실제로 사건은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됐다. 계속 상황을 주시하며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K팝 그룹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9월 초 LA 시내 스테이플스센터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과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FAKE LOVE)는 빌보드 진입 첫주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와 싱글 차트인 ‘핫 100’ 10위에 올라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5~26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의 막을 올린 뒤 미국(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포트워스, 뉴어크, 시카고), 캐나다 해밀턴,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등 10개 도시에서 21회 공연을 할 예정이며, 티켓은 이미 매진됐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UHD 숨터(재)	00 너도 인간이니?(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검법남녀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차츰우물 만큼 유망기 스페셜	
[2]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재)	25 양코르 MBC 스페셜 (육류관 서울 1호점)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모도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비밀과 거짓말(재)	00 토크 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5 MBC 뉴스 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인형의 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츰우물 만큼 유망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너도 인간이니?	00 검법남녀	00 기쁜진 멜로
[11]	00 KBS 뉴스라인 40 다크세상	10 안녕하세요	10 MBC 스페셜 (육류관 서울 1호점 2부)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결산특집	35 비바 K리그	10 세상의 모든 사람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과리고추 명품조림과 고추 들깨단장무침)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프리카 <자연의 색 뉴질랜드노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마사와 곰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띠띠뽀 띠띠뽀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00 몬카트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9:30 EBS 뉴스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림(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30 몬카트(재)	14:30 몬카트(재)	20:4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섬, 비누아트 1부 원시의 지구를 만나다, 타나>
08:45 방귀대장 뽀뽀로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대문 밖 비경 1부 계속 끝의 우리집>
09:00 뽀뽀로 뽀로로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크프라임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부모성적표 스페셜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3:55 배워서 남줄림(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6:15 똑딱맨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러라. 48년생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60년생 당면 과제부터 해결하라. 72년생 눈앞에 놓여 있더라도 직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성취하느니라. 84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75, 54</p>	<p>42년생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54년생 여유를 부리고 있을 계제가 못되느니라. 66년생 천천히 진행해야 장애가 없을 것이다. 78년생 무리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90년생 도처에 훈풍이로다. 행운의 숫자 : 32, 35</p>
<p>37년생 매끄럽게 풀려나가는 국세이다. 49년생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지나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61년생 변변치 못한 결과 앞에서 상심해 하는 형상이다. 73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5년생 함께하자. 행운의 숫자 : 07, 03</p>	<p>43년생 고난이아말로 삶을 단련시키는 스승이로다. 55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 67년생 시종일관하여 공구에 이르는 법이다. 79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진수하니 풍어를 기약하라. 91년생 조짐이 보이면 과감하게 수정하라. 행운의 숫자 : 45, 98</p>
<p>38년생 머지않아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니라. 50년생 세심하게 살피면서 가이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62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74년생 역할을 잘 해줘야만 한다. 86년생 간절히 필요로 했던 이가 스스로 나타나다. 행운의 숫자 : 63, 18</p>	<p>44년생 당해 보면 알 수 있다. 56년생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68년생 희망찬 기운의 진행이 계속된다. 80년생 책망은 몰래하고 칭찬은 알게 하라. 92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0, 01</p>
<p>39년생 소리쳐 불러보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 51년생 가을의 결실이 예견되는 판도이니 기쁘게 파종하자. 63년생 잘 하다가도 일순간에 망심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75년생 깔끔하게 하라. 87년생 일일이 확인하라. 행운의 숫자 : 96, 24</p>	<p>45년생 다 잡은 고기를 놓칠 수도 있다. 57년생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필요가 있다. 69년생 주변의 위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판도이다. 81년생 허망한 붉은 해가 치솟는다. 93년생 절대로 속단이나 방심은 금물이다. 행운의 숫자 : 28, 85</p>
<p>40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52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이 무탈하라. 64년생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 76년생 생산적인 국면으로의 전환과 운용이 절실하다. 88년생 방치한다면 패착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7, 70</p>	<p>34년생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46년생 가닥이 잡히면 즉시 속도를 내는 것이 지혜롭다. 58년생 가장 가까이 에 있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70년생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82년생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4, 74</p>
<p>41년생 파악하지 못하면 역효과가 난다. 53년생 의욕이 앞서더라도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65년생 지구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77년생 좋게 하려다가 더 망칠 수도 있다. 89년생 미리 준비 해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88, 81</p>	<p>35년생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년생 기반을 이뤘다는 면모이다. 59년생 불만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딱 잘라서 개선해야 한다. 71년생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83년생 직접 체험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3, 0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